

여교사 출산휴가

강제휴직등 변칙처리

전교조 인천지부 시교위에 대책 질의서...불법운영 표면화

전교조 인천지부가 지난달 27일 인천시교육위원회 앞으로 “여교사의 산전산후 특별휴가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강, 휴직권유, 본인부담에 의한 강사채용 등의 방법으로 보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내면서 여교사의 산후휴가 변칙처리로 인한 문제가 재연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이세숙씨는 “지난 2월 대부분의 인천지역 학교들이 산후휴가에 들어간 교사 대신 강사를 채용하지 않고 다른 교사들이 보강하도록 했다”면서 “사립학교의 경우 출산한 여교사에게 휴직권유, 강사로 본인부담 강요 등이 음성적으로 계속돼 왔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의하면 강

되고 있을 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이 대체강사로 부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태백시교육청, 인천시교육위원회 등 확인된 학교들의 관할기관에서는 “금시초문이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실이 밝혀지면 교장을 문책하겠다”고만 말하고

법정휴가 기간줄여 모성보호 조항 실종

다른 교사에 보강수업 떠넘겨...사립일수록 심해

대체강사로 본인부담 방식 부당 행위도

여성이 종사하는 직종 중 산후휴가 등 모성보호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여교사들이 출산휴가를 법정휴가 기간의 반인 한달밖에 못 얻고 있고 한달을 더 쉬려면 강사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등 출산을 떼뗄지 못한 일로 여기며 어렵사리 산후휴가를 얻는 경위가 많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별로 없다.

원도 태백시 초중학, 중여중의 경우 현재 각각 4명의 여교사가 산후휴가중이지만 각각 1명의 대체강사료분만 교육위원회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명분은 학교와 휴가를 받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교사 본인이 대체강사료로 각각 부담하는 비용은 15만원이다.

이들 학교는 공립인데도 교사 개인이 부담하도록 해 문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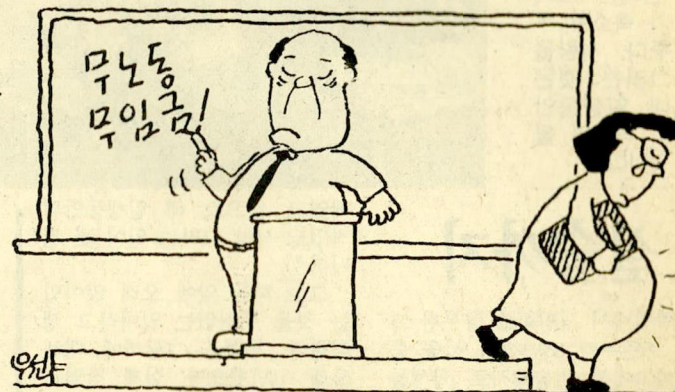
있다.

이렇게 최근 들어 산후휴가로 인한 잡음이 부쩍 많이 일고 있는 것은 문교부가 지난해 전교조교사를 대거 해직시킨 뒤 교사를 보충하면서 그동안 모자랐던 교사를 충분히 충원했다고 보고 ‘산후휴가시 강사를 쓰기 보다 학교별로 담당교사들이 보강을 하도록 권유’하면서부터로 교사들은 분석하고 있다.

문교부 보통교육국 교육재정과 최민식 과장은 “지난해 각 학교마다 모자라는 교사를 충분히 보충했기 때문에 산후휴가 대체강사는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쪽으로 권유하고 있다”면서 “이를 악용, 강사를 쓰는 경우 본인이 강사료를 부담하도록 하

는 일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산 여교사에 대한 부당대우는 갖가지 형태로 계속되고 있고 여교사들은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부당한 줄 알면서도 감수하고 있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전북 2여교, 1여교, 1상교 등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임신 여교사가 출산휴가를 요구하는 데도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휴직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등에 명시된 대로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명하는 직권휴직’이 아니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청원휴직임에도 재단 쪽에서 강제로 휴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휴직은 간접적인 사직강요라고 이들 교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부터 1개월 출산휴가를 받은 충남 모교등학교 박아무개 교사는 벌써부터 “뭐

하러 한달이나 쉬느냐. 빨리 나오라”는 독촉을 받고 있다.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해 강사를 채용, 강사비를 본인이 대면서 한달을 더 쉬려고 서무실에 알아봤더니 ‘교육위원회와 재단의 허락이 떨어지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나오는 것이 낫다’고 종용하더라는 것이다. 한편 강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다른 교사들이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에도 유급 출산휴가는 2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에게도 2개월 유급 출산휴가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요즘 일선 교사들이 받고 있는 이러한 대우에 대해 이화여대 교육학과 오옥환 교수는 “문교부가 학교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탁아소까지 마련해주면서 여교사가 원만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학교가 여교사를 출산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내쫓고 있는 이런 사태는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기자〉